

# 부여 송국리유적의 조사성과와 정비 및 활용

박병욱 (부여군청)

## 1. 오늘날의 시대상과 선사시대연구의 관계

본 발표에서는 청동기시대의 부여 송국리유적을 논하기 위해서 우선 오늘날의 시대상부터 알아보려고 한다. 한 시대의 시대상은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발달시키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분야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오늘날은 ‘우주탐사의 시대’이다. 우주탐사는 현시대에 가장 발달한 분야 중 하나로 온갖 과학과 첨단기술의 집약체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달에 기지를 세우고 자원을 채굴하는 등 인류가 상주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아르테미스 계획’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이러한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역사관을 매우 확장시켰다. 즉 사람들은 우주 밖에서 지구를 관찰하면서 특정 지역(국가)를 넘어 전체 인류를 하나의 단위로 판단하기 시작했고, ‘빅히스토리(Big History)’라는 역사관을 통해 인류의 고유한 특징을 파악해서 인류의 전체 역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는 분야는 선사시대이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수백만 년에 해당하는 인류의 역사는 대부분 선사시대이기 때문이며, 둘째는 인류의 고유한 특징이 대부분 선사시대부터 나타나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대표적인 선사시대 유적은 부여의 송국리유적이다. 따라서 부여의 송국리유적의 조사성과와 정비활용계획을 논하는 것은 한반도 고유의 역사는 물론 인류의 역사를 이해하고 보존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 2. 선사시대 송국리유적 조사성과의 사회적 의미

인간의 고유한 특징 중 하나는 사회를 이루며 살아간다는 점이다. 지구의 생물 중에는 무리 지어사는 동물도 있지만, 인간처럼 대규모의 체계적인 사회조직을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인간의 이러한 활동은 인류의 역사가 다른 생물들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게 만든 중요한 요소이다. 인류는 어떻게 대규모의 사회조직을 만들 수 있었을까? 이 질문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체계적인 사회조직이 처음 출현하는 시대의 특징을 살펴보아야 한다.

한반도에서는 청동기시대 중기에 대규모의 사회조직이 나타나며, 그 양상을 유구나 유물 등으로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곳이 부여의 송국리유적이다. 송국리유적 주민들이 대규모의 체계적인 사회조직을 만들었다는 증거는 크게 2 가지이다. 첫째, 과거와 달리 많은 주거지가 발견되기 때문이다. 구석기시대유적에서는 주거지가 거의 발견되지 않고, 신석기시대유적에서는 대부분 소수의 주거지만 발견된다. 반면 부여 송국리유적에서는 100 기 이상의 주거지가 확인된다. 즉 구석기시대에 사람들은 주로 소규모의 집단을 꾸려가며 이동생활을 했지만, 신석기시대를 거쳐 청동기시대에는 사람들이 정주하여 대규모 마을이란 사회조직을 유지했다고 판단된다.

둘째, 특별한 역할을 하는 시설물과 도구가 발견되기 때문이다. 송국리유적에서는 200m 가 넘는 목주열과 대형지상식건물지 등 위상이 높은 유구, 청동기 제작 등 생산전문화와 관련된 유물 등 다른 유적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유구와 유물이 발견된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점을 통해 청동기시대 중기는 송국리유적같이 중심지 역할을 하는 마을과 그 외 일반적인 마을로 이루어진 체계적인 사회조직이 출현한 사회였다고 해석한다.

## 3. 부여 송국리유적 정비와 활용계획의 방향

부여 송국리유적 정비와 활용계획의 방향은 종합정비계획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부여군은 4 차례에 걸쳐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했는데, 이번 2023 년도 종합정비계획은 기본적으로 유구의 조사·정비·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송국리유적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발전시기위한 목적으로 수립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에 부합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2 가지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첫째는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 이유는 송국리유적과 같이 거대한 선사유적의 종합정비는 정비방법이 어렵고 오랜 기간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일정한 기간에 완료하기도 어렵고 목표로 했던 결과도 도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부여군은 ‘토지 매입’→‘학술조사 및 학술연구’→‘정비 및 보존관리 시행’→‘상시 관리’의 순서로 종합정비를 진행하고자 계획했다. 즉 학술조사와 정비를 위하여 지정구역 내 사유지를 매입하고, 핵심구간을 발굴조사하여 유적의 구조와 성격을 규명하고, 학술조사를 바탕으로 유적의 원형 고증을 위한 연구를 추진한 후에 유적의 원형 및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주요 유구의 정비를 시행하는 것이다.

둘째는 유적의 여러 공간을 나누고, 각 영역별로 특징적인 정비를 추진하는 것이다. 부여의 송국리유적은 그 위치에 따라 지형과 경관이 다르며 확인되는 유구와 유물도 다양하다. 따라서 각 영역별로 알맞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송국리유적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치를 최대한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에 이번 계획에서는 ①유구정비영역, ②진입 및 활용영역, ③경관정비영역, 장기검토 대상지, 유보영역으로 구분하였다.

①유구정비영역은 주거지, 분묘, 목주열, 건물지 등의 청동기시대 유구를 나타내는 공간이다. 유구정비의 기본방향은 유구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고 관람객이 이해하기 쉽도록 유구의 특성을 살려 정비하는 것이다. 그런데 송국리유적은 유구의 잔존양상과 특성은 유구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 상황에 맞게 정비기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먼저 석관묘, 옹관묘 등의 분묘는 보호각을 설치하여 ‘노출전시’ 하고자 한다. 반면 주거지, 목주열, 건물지의 경우 잔존양상이 뛰어난 유구는 외관을 재현하지만, 그 이외는 평면형태만 알 수 있도록 바닥에 ‘표시’만 하고자 한다.

②진입 및 활용영역은 선사조형물, 방문자센터, 발굴사메모리얼파크, 농경유적기념관, 선사 체험 및 재현마을 등이 건립되는 공간이다. 선사조형물은 유구나 유물을 모티브로 디자인할 계획이며, 방문자센터는 체계적으로 유적을 관리하고 홍보하며, 발굴사 메모리얼파크는 그간 발굴조사의 역사를 전달하며, 농경유적기념관은 송국리유적이 청동기시대 농경문화를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건립되며, 선사 체험 및 재현마을은 여러 교육을 담당할 것이다.

③경관정비영역은 청동기시대 취락유적의 식생경관을 조성하는 공간이다. 이곳에는 선사식물주제관, 식물재배원, 수전연구실험장과 같은 전문시설과 함께 선사의 언덕, 송국리 뜰, 바람의 언덕, 해맞이 뜰, 선사의 숲과 같은 곳을 조성하여 연구는 물론 관광 효과까지 극대화시킬 수 있는 영역이다. 선사식물주제관은 청동기시대 식생과 수확작물을 전시하고 주변 지역 청동기시대 식생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식물재배원에는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수종을 식재하며, 이곳의 묘목은 향후 유적 정비에 활용할 계획이다. 수전연구 실험장에서는 농경실험재배지를 조성하여 송국리유적 출토 작물을 재배하고 연구할 것이다. 수전에서는 청동기시대 도작농경을 재현하여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주말농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그림 1. 14次 發掘調査 木柱列



그림 2. 大型 地上式建物地와 鬱柵



그림 3. 石棺墓 및 甕棺墓



그림 4. 5-23號 大形 細長方形 住居地



그림 5. 54-5號 火災住居地



그림 6. 壺形土器 各種



그림 7. 銅斧鑄范





그림 8. 赤色磨研土器 各種



그림 9. 兩耳附赤色磨研土器 各種



그림 10. 三角形石刀 各種



그림 11. 磨製石劍 各種



그림 12. 琵琶形銅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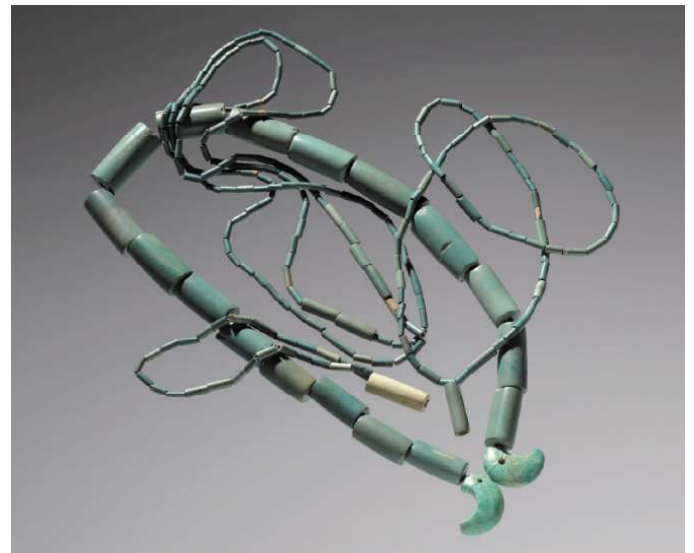


그림 13. 玉